

치유자의 원형으로서 <바리데기> 서사무가

- 황석영 소설 『바리데기』 속 '칠성이' 캐릭터를 중심으로

구형열*

<차례>

1. 들어가는 말
2. '내면아이'의 개념
3. 바리 속 '내면아이'의 성장 과정
4. 상처 입은 내면아이에서 상처 입은 치유자로
5. 나오는 말

<국문초록>

본고는 서사무가 <바리데기>를 현대적으로 재창작한 황석영 소설 『바리데기』 속 바리와 칠성이의 관계를 중심으로 치유자의 원형(原型)을 분석하고, 힐링, 치유가 화두(話頭)가 되고 있는 오늘날에도 의미가 있는 개념인 상처 입은 치유자란 어떠한 의미를 제시한 연구이다. 소설 『바리데기』 속에는 사람과 친숙하고 귀여운 동물인 '강아지'의 모습으로 형상화(形象化) 되어있는 '칠성이'라는 캐릭터가 등장한다. 이 글에서는 칠성이 캐릭터가 바리의 상처 입은 '내면아이'라고 보고, 바리 속 상처 입은 '내면아이'가 내적 성숙과 통합의 과정을 거쳐, 어떻게 경이로운 '내면아이'로 변화하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본고에서 바리와 칠성이의 관계에 주목한 이유는, 서사무가 <바리데기>를 포함한 황석영 소설 『바리데기』의 주인공은 '버려짐'이라는 상처가 있는 인물이며, 이야기 속 주인공 바리는 이러한 상처를 효과적으로 치유하여 상처 입은 치유자로 거듭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태어나자마자 버려졌다는 것은, 존재 자체가 부정되는 큰 '상처'라고도 볼 수 있는데, 바리는 나면서부터 버려진 큰 '상처'를 겪고도, 이러한 '상처'에 매몰되지 않고 오히려, 칠성이라는 존재와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 건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자기 ‘상처’를 치유하고, 할머니의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는 진정한 치유자로 거듭나는 큰 성취를 보이고 있다.

본고에서는 바리와 칠성이의 상호작용이 결과적으로 진정한 치유자의 모습인 할머니의 모습으로까지 변화하는 과정을 효과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헨리 나우웬이 그의 저서 『상처 입은 치유자』에서 제시한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개념을 활용하였다. 그리고 칼 구스타프 융(Jung)이 제안한 ‘내면아이’의 개념을 칠성이 캐릭터에 대입(代入)하여 분석하였다. 바리의 ‘내면아이’라고도 볼 수 있는 칠성이와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바리가 자기의 상처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며 상처를 치유하여 진정한 치유자인 ‘상처 입은 치유자’로 거듭나는 과정을 위 개념들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상처 입은 내면아이가 상처 입은 치유자로 거듭나는 과정에서 중요한 두 인물인, 할머니 캐릭터와 칠성이 캐릭터의 차이점에도 주목하여 분석하였다. 칠성이는 바리가 키우는 반려견으로, 바리와 동일한 ‘유기(遺棄)’의 상처가 있는 캐릭터이다. 칠성이는 귀엽고, 밝고 명랑한 이미지로 친숙하게 바리와 상호작용하는 캐릭터로 그려진다. 반면에 할머니는 바리를 돌봐주는 하지만 처음부터 바리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준 것은 아니었다. 할머니는 바리에게 직접적인 말을 통해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이러한 할머니의 모습은 칠성이와 바리의 관계보다는 다소 거리감이 있고 딱딱한 관계라고 보았다. 본고에서는 황석영 소설 『바리데기』에서 강조한 칠성이 캐릭터가 서사무가 <바리데기>에 비해, 삶의 고통과 어려움이라는 무거운 주제의식을 보다 친밀하고 밝게 풀어내기 위한 작가의 의도라고 분석하였다.

치유, 힐링이라는 것이 키워드로 부각되고 있는 요즘, 고전문학 작품에서 말하고 있는 진정한 치유자의 원형(原型)은 어떤 모습인지를 조명한 것은 오늘날에도 유의미한 치유자란 어떠해야 하는지를 들여다 볼 수 있게 한다. 나아가, 세상에 나고 살면서 상처 입지 않은 사람은 없는 것처럼, 상처 입은 자가 다른 상처 입은 자를 치유해 주는 존재로 변화하는 과정을 조명(照明)한다는 것 역시도, 상처 입은 사람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며 진정한 치유자의 원형은 무엇인지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큰 의미가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주제어 『바리데기』, 칠성이, 내면아이, 상처 입은 치유자, 치유자의 원형

1. 들어가는 말

<바리데기> 서사무가 속 바리는 ‘버려짐’이라는 상처가 있는 인물인 동시에 저승과 이승을 연결해 주는 ‘구원자’이자 ‘치유자’인 인물이다. ‘버려짐’은 인간으로서의 자아, 문명인으로 출현하는 자아의 잠재성으로부터 벗어나 성역화 된 자연적 존재, 또는 신이한 초인간적 존재로서의 바리데기의 의미를 제공하는 측면이 있다.¹⁾ <바리데기> 서사무가 속 바리는, ‘버려짐’이라는 상처가 있으나 그 상처를 잘 치유하여 타인을 보살피 주는 사람으로까지 성장하는 서사로 인하여,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수많은 상처 입은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느껴지고 또한 귀감이 된다.

<바리데기> 서사무가 속 바리 캐릭터가 갖는 치유적 서사에 더하여, 서사무가라는 갈래가 갖는 치유적 특성은,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이어져 전해오는 서사무가가 가진 힘인 동시에 오늘날에도 유의미한 서사무가의 중요한 가치라고도 볼 수 있다. 신동훈은, 우주의 근원적 힘과 소통하며 그것을 발현하는 노래로서의 무기는 ‘치유의 문학’을 존재적 본질로 삼고 있다²⁾고 보았으며, 특히 <바리데기> 서사무가를 그 전통서사가 오랜 세월의 풍랑을 거치며 한민족의 대표적 치유서사 구실을 해³⁾왔다고 평가하였다. 바리 캐릭터 갖는 서사적 흡인력과 <바리데기> 서사무가가 갖는 치유적 특성 덕분에, <바리데기> 서사무가는 오늘날에도 연극⁴⁾, 영화⁵⁾, 소

1) 최윤정, 「우리 신화, 그 탈주-담론의 심층사회학-바리데기 신화 다시쓰기」, 『비교한국학』 20-2, 국제비교한국학회, 2012, 508~509쪽.

2) 신동훈, 「21세기 사회문화적 상황과 고전문학 연구의 과제 -자본과 욕망의 시대, 존재와 가치의 근원으로-」, 『고전문학과 교육』 22,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11, 132쪽.

3) 신동훈, 「황석영 소설을 통해 본 이야기 전통의 현대적 재현 문제」, 『한국문학연구』 58,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18, 109쪽 참조.

4) <바리데기> 서사무가를 활용하여 재창작한 연극으로는, 2022.06.17.부터 2022.06.26.까지 아르코 예술극장에서 공연했던 이승우 연출, 이승우 작가의 <말이되기>가 있다; 2024.07.18.부터 2024.07.19.까지 사천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이훈호 연출,

설)과 같은 다양한 갈래로 재창작·변용되어 폭넓게 향유되고 있으며 그 대중적 가치 또한 인정받고 있다.

<바리데기> 서사무가를 재창작한 작품 중에서, 치유자로서의 원형(原型)이 부각 되고 있는 작품이 있는데, 황석영의 『바리데기』⁷⁾다. 황석영은 <바리데기> 서사무가뿐만 아니라 <심청가>, <장길산>과 같은 고전문학과 구비설화를 수용하여 현대적인 작품으로 많이 창작했을 뿐만 아니라 리얼리티를 잘 구현한 작가라는 평가⁸⁾가 뒤따른다. 황석영 소설 『바리데기』는 <바리데기> 서사무가를 현대적으로 재창작하여, 90년대 ‘고난의 행군’ 시기의 북한을 시작으로 중국, 영국에 이르기까지 소설 속 주인공 바리가 버려졌다가 부모를 되찾는 과정을 거쳐, 온전한 치유자로 성장·변화하게 되는 모습을 잘 그리고 있는 작품이다.

힐링, 치유가 커다란 화두로 부각 되고 있는 이 시대에 진정한 치유자란 어떤 사람을 말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치유자란 누구를 말하며, 어떻게 상처 입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치유해 주는 존재로 변화할 수 있는지를 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필요성을 자각하면서 한 상처 입은 인물이 진정한 치유자로 변화하는 과정을 잘 그린 작품인 황석영의 소설 『바리데기』에 집중하고자 한다. 『바리데기』 속 바리는 사면의 조상으로서 무조신에 해당하는 존재거니와 그가 버림받은 존재로서 세상의 고통 받는 자들을 구원하는 역정은 사면의 삶을 단적으로 함축한 것으로서의 의의

정가람 작가의 창작 연극 <바리, 서천 꽃그늘 아래>가 공연되었다.

5) 이세원 감독, 공정환, 지대한, 황설아, 바울, 전지학 주연, <바리데기>, 2024.09. 개봉.

6) 황석영, 『바리데기』, 창비, 2014.

7) 황석영(2014), 위의 책.

8) 정통적 리얼리즘 작가로 입지를 굳혀왔던 황석영은 21세기 들어 소설 『바리데기』와 같은 전통서사를 적용한 작품들을 속속 출간하는 특별한 행보를 보이며, 한국문학에서 이야기성의 회복이 어떻게 가능하며 또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었다(신동훈(2018), 앞의 논문, 86쪽 참조).

를 지낸다.⁹⁾ 특히, 소설 『바리데기』 속 바리-칠성이의 관계에 집중하여 치유자의 원형(原型)에 대해서 탐구하고자 한다. ‘버려짐’이라는 상처가 있는 바리가 진정한 치유자로 변화하는 데 어떤 과정을 거치며, 이러한 과정은 치유자의 원형으로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밝히고자 한다.

서사무가 <바리데기>와 관련한 선행연구로는 무가로서의 <바리데기>에 관련된 연구들¹⁰⁾이 있다. <바리데기> 서사무가에 나타난 고통의 문제와 관련된 연구들¹¹⁾이 있다. 이러한 연구에는 <바리데기> 서사무가 속 고통의 문제와 이와 관련된 문학치료학 연구¹²⁾ 및 문학교육 연구¹³⁾가 포함된다. 또 다른 <바리데기> 서사무가 연구로는 <바리데기> 서사와 현대적 수용에 천착(穿鑿)한 연구들이 있다.¹⁴⁾ 또 다른 연구로는 황석영 장편

9) 신동훈(2018), 위의 논문, 111쪽.

10) 김정은, 「동해안무가 <바리데기>의 화자별 변이 양상과 의미 : 구연자 성향에 따른 서사적 초점의 이동을 중심으로」, 『구비문학연구』 32, 한국구비문학학회, 2011; 윤준섭, 「함흥본 <바리데기>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윤준섭, 「서사무가 안동본 <바리데기> 연구」, 『구비문학연구』 48, 한국구비문학학회, 2018.

11) 관련 연구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이정화, 「<바리데기> 속 폭력의 양상과 그 현대적 의미」, 『우리어문연구』 74, 우리어문학회, 2022; 박선양, 「디아스포라 서사의 ‘바리’ 변주-『바리데기』와 『중군위안부』를 중심으로」, 『국어문학』 81, 국어문학회, 2022; 신연우, 「함흥본 <바리데기>의 죽음의 이해」, 『구비문학연구』 48, 한국구비문학학회, 2018.

12) 관련 연구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김효현, 「부모화된 청소년의 탈부모화를 위한 문학치료 프로그램 설계-<바리데기>설화를 바탕으로-」, 『문학교육학』 70, 한국문학교육학회, 2021; 박운주, 「부녀관계에 기인한 남녀관계 갈등에 대한 문학치료 연구 : <바리데기>를 통한 자기서사 진단과 해결방향 탐색」,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신동훈, 「치유의 서사로서의 무속신화 -그 문학치료적 힘에 대한 단상-」, 『문학치료연구』 2, 한국문학치료학회, 2005; 호정화, 「탈북여성의 트라우마와 치유-황석영의 『바리데기』를 중심으로」, 『독서치료연구』 14(1), 한국독서치료학회, 2022.

13) 장한주, 「<바리데기>에 나타난 성장서사를 활용한 교수·학습 연구」, 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황윤정, 「상상적 이해의 문학교육 방법 연구 : 서사무가 <바리데기>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14) 관련 연구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신동훈, 「황석영 소설을 통해 본 이야기 전통의 현대적 재현 문제」, 『한국문학연구』 58,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18; 신동훈,

소설 『바리데기』에서 그리고 있는 세계의 의미와 이주노동자와 관련된 연구이다.¹⁵⁾ 이러한 선행연구들 중에서 이 글과 가장 연관성이 깊은 연구에 해당하는 <바리데기> 서사와 현대적 수용에 주목한 연구들은 영웅서사로서의 <바리데기> 서사를 분석¹⁶⁾하거나, 기존의 효(孝) 관념을 뛰어넘는 존재론적 바리의 모습을 발견하거나¹⁷⁾, 혹은 당하기만 하는 소극적 여성에서 남성을 감싸안으며 넘어서는 여성으로서의 바리¹⁸⁾의 모습을 분석한 연구들이다.

지금까지의 서사무가 <바리데기>와 관련된 선행연구들 중에서 이 글과 가장 관련이 있는 주제인 <바리데기>의 서사와 현대적 수용에 주목한 연구들은, <바리데기>의 서사를 분석하고 주인공 바리의 서사가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에 주목한 연구들이었다. 이러한 연구들을 통하여 <바리데기>

「창작 판소리의 길과 <바리데기 바리공주>」, 『판소리연구』 30, 판소리학회, 2010; 신동훈, 「21세기 사회문화적 상황과 고전문학 연구의 과제 -자본과 욕망의 시대, 존재와 가치의 근원으로-」, 『고전문학과 교육』 22,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11; 송영림, 「바리데기 신화의 연극 공연으로의 변용과 그 의미-연극<바리, 서천 꽃그늘 아래>를 중심으로-」, 『겨레어문학』 56, 겨레어문학회, 2016; 차민기, 「“바리서사”의 현대적 변용 양상 고찰-『바리공주』와 소설 『바리데기』에 나타난 “여성성”과 “연대” 의식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이론연구』 45, 현대문학이론학회, 2011; 강준수, 「<바리데기>에 나타난 서사 유형 고찰」, 『인문학연구』 103, 충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6; 최윤정, 「우리 신화, 그 탈주-담론의 심층사회학-바리데기 신화 다시쓰기」, 『비교한국학』 20(2), 국제비교한국학회, 2012; 이성준, 「『바리데기』의 분석심리학적 접근」, 『배달말』 48, 배달말학회, 2011; 최어진, 「아포칼립스(apocalypse) 콘텐츠로 읽는 <바리데기>-영화 <매드맥스 : 분노의 도로>(2015)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학논집』 84,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2021.

15) 관련 연구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박기량, 「황석영의 『바리데기』에 나타난 세계상과 낙화의 의미」, 『인문사회』 21(12), 인문사회21, 2021; 오창은, 「난민의 서사를 통한 유럽 보편주의의윤리적 재구성-황석영의 『바리데기』를 중심으로-」, 『국제어문』 83, 국제어문학회, 2019.

16) 강준수(2016), 앞의 논문.

17) 최윤정(2012), 앞의 논문.

18) 최윤정(2012), 위의 논문.

속 바리의 서사와 바리 캐릭터가 과거에만 유의미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될 만한 것임을 밝혔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 중에서, 서사무가 <바리데기>가 갖는 치유적 특성에 주목한 동시에, <바리데기>를 현대적으로 재창작한 작품인 황석영 소설 『바리데기』에서 그것이 어떻게 형상화(形象化)되어 있는지를 분석한 연구는 미진하다고도 볼 수 있다. 본고에서 주목한 서사무가 <바리데기>의 치유적 특성과 이러한 속성이 소설 『바리데기』에서 어떻게 형상화되고 있는지를 분석한다는 것은, 서사무가 <바리데기>에 담겨 있는 ‘진정한 치유자의 원형’이란 무엇인지를 심도 있게 성찰한다는 의미가 있다. 또한 과거로부터의 유산(遺産)인 서사무가 <바리데기>가, 황석영이라는 작가에 의해 현대에는 어떠한 방식으로 스토리텔링 되고 있는지 그 방식을 조명한다는 의미가 있다.

본고에서는 <바리데기> 서사무가 속 바리의 치유자로서의 원형을 잘 구현하고 있는 현대의 작품인 황석영 소설 『바리데기』에 주목할 것이다. 바리와, 바리의 반려견 칠성이가 어떤 관계를 맺으며, 이를 통해 바리는 어떻게 성장하여 진정한 ‘상처 입은 치유자’¹⁹⁾로 변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상처 입은 치유자가 진정한 치유자로 거듭남을 잘 보여줄 수 있는 ‘내면아이’ 개념을 활용하여 『바리데기』를 분석할 것이다. 나아가 황석영 『바리데기』 작품 내에서, 치유자의 또 다른 원형으로서 기능하고 있는 할머니와 칠성이는,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분석하고자 한다.

19)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용어는, 헨리 나우웬이 그의 저서에서 사용한 용어이다(헨리 나우웬, 최원준 옮김, 『상처 입은 치유자』, 두란노, 2022).

2. ‘내면아이’의 개념

‘내면아이(inner child)’란 이미 성인이 된 사람의 내면에 있는 상처 입기 쉬운 연약한 부분을 말한다. ‘내면아이’는 상처 입기 쉬운 연약한 내면이라는 점에서, ‘상처’, ‘트라우마’ 자체와는 구별이 된다. 이미 성인이 되었으나 상처에 노출되기 쉬운 어린아이와 같아서 ‘내면아이’라고 부르고, 이렇게 아직 미성숙한 ‘내면아이’를 갖고 있는 성인을 ‘성인아이(adult child)’라고 부른다.

칼 구스타프 융(Jung)은 ‘원형(archetype)’ 개념을 빌려, 내면 깊숙이 자리 잡은 원형으로서의 아이를 ‘경이로운 내면아이(the wonderful inner child)’와 ‘상처받은 내면아이(the wounded inner child)’로 구분했다. 전자의 ‘내면아이’가 순진하고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아이의 형상을 띠는 반면, 후자의 ‘내면아이’는 이기적이고 유치하고 감정과 지적인 성장을 거부하는 형상을 띤다.²⁰⁾

이렇게 마음의 상처를 입은 내면아이가 있는 사람은 몸은 이미 성인이 되었음에도 ‘어린 시절에 해결하지 못했던 슬픔’을 느끼면서 살고, 에릭슨(Erikson)이 말하는 심리사회적 8단계 발달 이론(eight stages of psychosocial development)에서 다음 발달단계로 이행되지 못하게 된다.

존 브래드쇼(John Bradshaw)는 어린아이의 성장이 저지되거나 감정이 억제되었을 때, 특히 화가 났거나 마음에 상처를 받았을 때의 감정들을 그 아이가 그대로 가진 채 자라나서 성인이 된다면, 그 화가 나 있고 상처 입은 아이는 어른이 된 후에도 계속해서 그의 내면에 자리 잡게 된다고 말한다.²¹⁾ ‘어린 시절에 해결하지 못했던 슬픔’이 성인이 된 후에도 내면에

20) 김영희, 「‘내면아이(inner child)’ 개념을 활용한 자기 상실 애도의 글쓰기」, 『문학치료연구』 36, 한국문학치료학회, 2015, 233쪽.

21) 김영희(2015), 위의 논문, 234쪽에서 재인용.

고스란히 남아서 인생을 파괴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상처받은 내면아이가 있는 사람은, 상처 입은 내면아이를 잘 보살피고 돌봐서 경이로운 내면아이가 같이 창조적이고 자발적인 힘이 나타나도록 해야 한다. 다시 말해, 상처받은 내면아이를 돌보는 과정은 내면의 심리적 통합을 이루어 내는 과정인 동시에, 이 과정을 통해 ‘내면아이가’ 새로운 재생과 원기의 원동력이 되어 타고난 잠재력과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것이다.²²⁾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면아이가’ 겪은 상처의 상황과 과거의 상황을 다시 떠올려 경험하면서 ‘내면아이가’ 느낀 상처의 감정을 공감받고 지지받는 과정을 겪어야 한다. 사람이 진정한 변화를 원한다면, 그 사람의 핵심 요소를 바꾸어야 하는데, 인간의 핵심 요소를 즉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면의 아이와의 접촉을 시도하는 것²³⁾이라고도 볼 수 있다. 즉, 상처받은 내면아이의 문제를 극복하는 것은, 상처받은 내면아이를 대면(對面)하여 과거의 경험을 새롭게 의미화하고, 이 과정에서 상처받은 내면아이의 슬픔에 공감하여 그 슬픔을 함께 애도하는 과정, 더 나아가 스스로가 새로운 부모가 되어 상처받은 내면아이를 끌어안고 보살피는 과정²⁴⁾을 거쳐야 한다.

사람들이 자신의 상처받은 내면아이를 발견하고, 그 아이를 잘 보살피고 양육하게 되면, 그들 안에 감추어져 있는 훌륭한 선천적인 아이(a wonderful natural child)의 창조적인 힘이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다. 이러한 내면의 통합이 이루어지면, ‘내면아이’는 그 사람의 새로운 재생과 원기가 되는 자원이 될 것이다.²⁵⁾ 사람 안에 있는 ‘내면아이’를 돌보는 과정을

22) 김영희(2015), 위의 논문, 233~234쪽 참조.

23) John Bradshaw, 오제는 율김, 『상처받은 내면아이 치유』, 학지사, 2019, 17쪽.

24) 김영희(2015), 앞의 논문, 235쪽에서 재인용.

25) John Bradshaw(2019), 앞의 책, 14쪽.

거쳐 치유가 잘 이루어지면, 사람 안의 ‘내면아이’는 본래의 창조적인 힘을 발현하여 앞서 설명한 융(Jung)이 말한 ‘경이로운 내면아이(the wonderful inner child)’의 모습으로 변화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이 ‘내면아이’를 돌보는 진정한 치유의 모습이며, 상처 입은 내면아이가 상처 입은 치유자로 변화하는 진정한 치유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3. 바리 속 ‘내면아이’의 성장 과정

1) 바리의 상처 입은 내면아이로서 칠성이

사람은 살아 있다는 존재만으로 가치가 있다. 한 사람이 태어나 살면서 저마다의 이유로, 그리고 저마다의 이유를 생각하면서 자기의 존재 가치를 발견하고 이를 발현하며 살아간다. 세상에 갓 태어난 아이는 건강하다는 이유로, 혹은 그렇지 못하더라도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부모에게 큰 기쁨을 주기도 한다. 부모와 세상으로부터 존재 자체만으로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고, 받아야만 하는 시기가 바로 태어난 직후인 아이였을 때라도 볼 수 있다. 아이들은 자신의 선택과는 상관 없이, 천성적으로 의존적이며 도움이 필요한 존재²⁶⁾인 것이다. 아무런 생존 능력이 없는 아이에게 그를 양육하는 부모의 역할은 절대적이며, 부모는 아이의 생존에 필요한 의식주(衣食住)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안정을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바리의 경우에는 부모가 이러한 역할을 해주지 못했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때에, 그 누구에게도 충분히 받아들여지는 경험을 하지 못한 사람이 바리다. 바리는 존재 자체만으로 부모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싫은 대상이 되었고 밀쳐졌다.

26) John Bradshaw(2019), 위의 책, 68쪽 참조.

큰언니가 모두에게 주의를 주었다고.

이제부터 짹짹 소리 없이 아버지 돌아올 때까지 밖으로 나갈 생각 말라.²⁷⁾

나는 사람구실이 시작된다는 백일이 넘을 때까지 이름이 없었다. 아무도
이름 지어줄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11쪽)

그렇게 되어서 할머니는 내 이름을 ‘바리’라고 짓기로 했다. 세상의 끝까지
돌아다니면서 온갖 고생을 겪다가 할머니가 내 이름을 바리라고 부르게 된 뜻
을 스스로 깨우치게 된 것은 훨씬 나중의 일이다.(13쪽)

여자로 태어났다는 이유로, 부모가 원하는 아들이 아니라는 이유로 바리는 부모가 싫어하는 대상이 되었고 부모로부터 이름마저 지음 받지 못했다. 바리데기는 딸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고, 자신의 부모가 구약을 위해 자신을 찾자, 자신을 버린 부모를 위해 험한 구약의 길을 떠난다.²⁸⁾ 꼭 갓 태어난 아이가 아니더라도, 한 사람이 세상의 그 누군가로부터도 충분히 받아들여지는 경험을 하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기가 참 힘들 것이다. 그런데 바리는 존재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받아들여지고 사랑받아야 할 시기조차도 사랑은커녕 미움을 받았다.

미안하구 섭섭하니까니, 미안이나 섭섭이라구 짓소.

기런 이름두 들어보긴 했다만 가만 보자, 저절 숲에 내다버렸지비?

그렇게 되어서 할머니는 내 이름을 ‘바리’라고 짓기로 했다.(12~13쪽)

한 사람의 정체성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이름이 바리에게는 ‘버려졌다’라는 뜻으로 지어졌다. 바리는 날 때부터 버려진 존재라서 그를 대표하는 이름마저도 버려졌다는 뜻의 ‘바리’가 되었다. 미안하고 섭섭해서 미안

27) 황석영, 『바리데기』, 창비, 2014, 9쪽.(이후부터는 쪽수만 표시)

28) 김효현, 「부모화된 청소년의 탈부모화를 위한 문학치료 프로그램-바리데기 설화를 바탕으로」, 『문학교육학』 70, 한국문학교육학회, 2021, 507쪽.

이나 섭섭이가 될 뻔하였으나 바리의 이름은 태어날 때부터 버려진 존재라는 뜻의, 바리였다. 인간은 누구라도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는 순간 한 명의 독자적 개체가 되기 마련이다. 그 존재를 지키고 움직여 나가는 것은 근본적으로 자기 자신의 몫이라 할 수 있다. 산에 버려져 홀로 자신의 삶을 짊어 나가야 하는 바리데기의 형상은 그와 같은 인간의 본원적 속성을 반영한 것²⁹⁾이며, 부모로부터 ‘버려진’ 바리는 이러한 인간의 존재론적 물음을 자기 스스로에게 던지기 시작하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바리네 집에서 태어난 강아지인 칠성이가 있다. 칠성이도 바리처럼 날 때부터 미움받는 존재였다. 사람이 먹고살기도 어려운, 가난한 때에 강아지로 태어났다는 이유로 칠성이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았다. 칠성이는 바리처럼 일곱 번째로 태어난 새끼였고, 미움받는 존재라는 점에서도 바리와 공통점이 있었다.

칠성이는 처음부터 내가 일곱 마리의 새끼 중에 맨 막내를 찾아낸 그 강아지였다. 할머니가 나와 같은 일곱째라고 칠성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37쪽)

칠성이를 감추라는 뜻이었을 게다.

지금 산간에선 굶어 죽는 가호도 많습네다. 부위원장 동지 낚장을 생각하시라요.

아 기쎄 알가서. 무산에 가보구 키우든지 남 주든지.(39쪽)

나는 식구들과 자리에 앉자마자 칠성이를 의자 밑에 밀어넣었다. ‘사람들이 널 보면 싫어한대. 그러니까 갑갑하겠지만 그 아래 가만히 엎데 있으라.’하고 나는 마음속으로 몇 번이나 일러주었다.(40쪽)

직접 저지른 잘못이 있다면 모를까, 태어났고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29) 신동훈, 「21세기 사회문화적 상황과 고전문학 연구의 과제 -자본과 욕망의 시대, 존재와 가치의 근원으로-」, 『고전문학과 교육』 22,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11, 134쪽 참조.

싫어한다면 그 사람은 살아간다는 게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불안할 것이다. 과거에 무시당하고 상처받은 내면아이(neglected, wounded inner child of the past)가 바로 사람들이 겪는 모든 불행의 가장 큰 원인³⁰⁾이라고도 볼 수 있다. 칠성이는 가난한 세상에 태어나서, 사람들 눈에 띄면 안 되고 감춰져야만 했다. 그리고 스스로 숨어야 했다. 바리는, 칠성이의 모습에서 상처 입은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고 칠성이에게 가만히 옆에 있으라며 칠성이를 심적으로 붙잡아 준다.

부모와 세상으로부터 버려진 바리와 그와 같은 처지인 칠성이는 서로가 서로에게 유일한 지지자이자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던 상대였던 것이다. 태어날 때부터 미움받은 바리와 칠성이는 그 존재가 부모와 세상으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처지가 비슷했고, 두 존재는 앞으로 살아가야 할 험한 인생을 함께하게 된다.

칠성이가 남아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었다. (중략) 칠성이가 사라진 제 엄마 흰둥이 대신 낡은 집을 차지하고 들어앉았고 그것이 태어나고부터 우리 집안에 좋은 일이 생기기 시작했다.(37쪽)

버려진 존재인 바리는 자기처럼 똑같이 버려지고 미움받는 존재인 칠성이에게 마음을 주고 관심을 갖기 시작한다. 모두가 싫어하는 자기와 비슷한 존재인 칠성이에 대해서 바리는 좋은 감정을 갖고, 칠성이가 있어 좋은 일이 생긴다고 믿는다. 바리는 자기의 처지와 너무도 꼭 닮아서 자기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칠성이를 보면서 슬픔과 연민(憐愍)의 감정을 느꼈을 것이다. 그래서 두 사람은 서로, 세상에서 유일하게 공감할 수 있는 상대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바리와 칠성이와의 관계는 상처 입은 자기의 모습을 바라본다는

30) John Bradshaw(2019), 앞의 책, 31쪽.

점에서 ‘내면아이’의 개념으로 이해해 볼 수 있다. ‘내면아이(Inner Child)’란 우리의 인격 중에서 가장 약하고 상처받기 쉬운 부분을 말³¹⁾하는데, 바리에게 있어서 자기와 똑같이 ‘유기(遺棄)’된 칠성이의 모습은 바리 내면에 자리한 ‘상처 입은 내면아이’라고도 볼 수 있다. 바리는 먹고 사는 문제와 같은 현실에 매몰되어 살 수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았다. 오히려 자기의 처지와 닮은 칠성이를 발견하고, 관심 갖고 그 존재의 아픔을 붙잡아 끌어안아 주었다. 바리는 칠성이라는 상처 입은 내면아이를 직면(直面)하고 그 ‘내면아이’를 돌보는 길을 선택한 것이다.

상처 입은 마음을 치유하고자 하는 사람은, ‘내면아이’는 어린 시절은 이미 끝났고, 이제 절대로 다시 돌아갈 수 없으며, 새로운 부모를 실제로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상처받은 내면아이를 가진 사람은 어린 시절과 부모의 상실을 애도해야 한다.³²⁾ 바리가 칠성이라는 존재를 의식하게 되고, 칠성이에게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자기를 버리고 ‘유기(遺棄)’의 상처를 안겨준 실제 부모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끊어내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실제 부모와의 유대를 단절한 대신에 칠성이와 유대를 형성하고 칠성이도 바리와 똑같이 ‘버려짐’의 상처가 있음을 공감하면서, 바리는 실제 부모에게 향해 있던 기대를 끊고, 상처를 주었던 실제 부모에 대해 애도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러면서 바리는 진정한 치유의 과정인, 실제 부모와 정서적으로 이별하고 자기의 ‘내면아이’를 돌보는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다.

2) 상처 입은 내면아이와의 직면과 돌봄

바리는 칠성이를 통하여, 자기 안의 상처 입은 내면아이를 직면(直面)한

31) 정갑임, 「우리 안의 ‘아이’라는 자원 - ‘동심’과 ‘내면아이’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양명학』 57, 한국양명학회, 2020, 9쪽 참조

32) John Bradshaw(2019), 앞의 책, 268쪽 참조

다. 그리고 자기가 직면한 ‘내면아이’를 외면하거나 모른 척 살아가지 않고, 적극적으로 보듬고 돌본다. 바리는 칠성이를 보듬는 행위를 통하여 ‘유기(遺棄)’라는 상처가 있는 자기의 ‘내면아이’를 직면하고 돌보기 시작하는 것이다.

나는 처음에 강아지들이 태어나던 날 아침에 칠성이와 한 **약속**을 잊지 않고 있었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고 마음속의 속삭임** 말이다.(39쪽)

바리는 칠성이와 마음속으로 대화를 한다. 바리는 고조할머니가 무당이었고, 바리의 할머니도 헛것을 보고 소리를 듣는 집안 내력이 있었다. 바리 역시도 고조할머니나 할머니처럼 귀신을 보기도 하고 타인의 마음속 소리를 듣는 특별함이 있었다. 바리는 이러한 특별한 능력을 통하여 칠성이와 마음속으로 대화를 한다. 그리고 칠성이를 팔아버리려는 부모님으로부터, 칠성이를 미워하는 세상으로부터 지켜주겠다고 약속을 한다. 바리는 칠성이와 표면적인 관계를 맺거나 의사소통을 위한 대화만이 아닌,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을 하고, 마음으로 칠성이와 관계를 맺는다.

어찌나 보려고 허리를 숙여 들여다보면 꼬리만 가볍게 사랑살랑 흔들었다.(40쪽)

칠성이와 약속을 하고 마음으로 소통하는 바리는 칠성이에게 진심 어린 관심을 준다. 사람들이 싫어해서 몸을 숨기느라 의자 밑에 몸을 숨기고 있는 칠성이를 향해서, 바리는 몸을 움직이고 허리를 숙여 잘 있는지 확인한다. 이러한 바리의 모습은 주변 사람들은 모두가 싫어하는 칠성이를 바리만큼은 특별하게 아끼고 관심을 주고 있는 모습이다. 바리는 상처 입은 칠성이, 다시 말해 자기의 ‘내면아이’를 돌보고 관심을 주고 있는 것이다.

바람 속에 오수숫대와 너푼한 잎들이 흔들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두 손을 입가에 모으고 어둠속을 향하여 외쳤다.

칠성아, 칠성아!

...(중략)...

할머니가 어둠속으로 사라진 뒤 옥수수밭 가운데 나는 칠성이와 단둘이 남아 있었다.

‘바리야 바리야’ 하는 소리에 나는 놀라서 뒤를 돌아보았다. ‘나 죽을 뻔했어. 낫선 남자들이 나를 잡아 산으로 끌고 갔어.’ 칠성이는 가늘게 쉼쉼 숨을 내쉬고 있었다. 그날부터 나는 내 속마음을 전달할 뿐만 아니라 말 못하는 숙이 언니의 마음을 듣던 것처럼 칠성이의 마음속 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다. 나는 눈을 감고 생각했다. ‘괜찮아, 내가 널 지켜줄게. 며칠만 쉬면 곧 나올 거야.’

...(중략)...

청진에서부터 그 어미 흰둥이가 쓰던 개집은 아예 뺐개어 불쏘시개를 하고 광에다 짚을 깔아 칠성이의 잠자리를 만들어 주었다. 칠성이가 다시 건강을 되찾은 것은 보름이나 지나서였다.(51~53쪽)

칠성이도 우리 뒤로 부지런히 **따라왔다.**(64쪽)

위 장면에서도 바리는 칠성이를 보살피어 준다. 낫선 남자들이 칠성이를 잡아가 사라져 버린 칠성이를 찾기 위해, 바리는 칠성이의 이름을 부르며 칠성이를 애타게 찾는다. 바리는 칠성이를 진심으로 걱정하며 낫선 남자들이 의해 상처 입은 칠성이의 몸을 치료해 준다. 그리고 잠자리를 만들어 칠성이가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바리는 자기의 ‘내면아이’인 칠성이와 동행하면서 아픔이 있을 때 함께 하고 칠성이를 보살피고 있다. 그러자 칠성이는 자기를 진심으로 보살피는 바리를 따라다니는 모습을 보인다.

바리는 ‘버려진’ 경험만 있을 뿐, 단 한 번도 누군가에게 받아들여져 본

경험이 없었다. 칠성이 역시도 바리처럼 ‘버려진’ 경험만 있을 뿐, 누군가에게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진 경험이 없었다. 그런데 바리는 버려진 칠성을 마치 자기의 어린 시절의 모습을 돌보듯, 칠성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있었다. 바리는 이러한 칠성의 존재를 그대로 수용해 주는 유일한 사람인 것이다.

‘내면아이’의 발달단계에서 그것에 맞는 종류의 돌봄이 필요한데,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 단계는 아이의 성장 과정에서 충족되었어야 할 욕구들(needs)이 채워지지 못한 것에 대해 내면 아이가 슬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³³⁾ 또한 내면아이가 자기 자신이 되기 위해서는 치료사의 무조건적인 허락이 필요하다.³⁴⁾ 바리가 버려진 칠성을 되찾아 치료해 주는 행위는 지금껏 단 한 번도 충분히 수용 받아보지 못한 칠성을 있는 그대로 수용해 주는 것인 동시에, 바리가 칠성의 유일한 피난처이자 수용자가 되어 준다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바리가 칠성이라는 자기의 상처 입은 내면아이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수용·돌보아 주는 것을 통하여, 바리는 어린 시절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못했던 자기의 상처를 스스로 보듬는 것과 같은 치료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바리가 칠성을 돌봐주고, 칠성이 이런 바리를 따라다니는 위의 장면이 따뜻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그래서 여기서 그리고 있는 바리-칠성의 관계가 행복해 보이기까지 한다. 바리가 칠성의 아픔을 보살피 주는 모습은 바리에게도, 칠성에게도 행복하게 그려지고 있는데, 이와 같은 모습은 <바리데기> 서사무가에는 직접적으로 그려지지 않는다. 소설 『바리데기』에서 바리는 이와 같은 <바리데기> 서사무가에는 직접 나타나지 않는 바리-칠성의 관계를 통해 시나브로 자기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또한 소설 『바리데기』에서는 사람과 친숙한 동물인

33) 정갑임(2020), 앞의 논문, 11쪽 참조

34) John Bradshaw(2019), 앞의 책, 286쪽 참조

‘강아지’라는 소재를 통하여, 의도적으로 바리와 칠성이의 관계 속에서 친숙함을 부각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다만 칠성이 일은 못내 섭섭했다.

...(중략)...

아버지는 그에 관해 말이 없었지만 아마 돈을 받았을 거라고 짐작했다. 나는 칠성이가 우리와 함께 산에 와서 배를 끓기보다는 그래도 **그 집에서 사랑을 받으며 자라는 게 낫겠다 싶었다.**(71쪽)

바리와 칠성이는 함께 하는 동행적 관계가 되었으나, 이러한 관계도 외부적 갈등이 생기는 바람에 오래 가지 못한다. 바리의 아버지가 칠성이를 이웃집에 돈을 받고 팔게 된 것이었다. 이웃집에 돈을 받고 팔려 버린 칠성이를, 바리는 어떻게든 되찾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바리는 칠성이를 되찾지 않는다. 오히려, 자기 집보다 더 잘 사는 이웃집에서 칠성이가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살면 좋겠다는 마음에 칠성이를 이웃집에 순순히 보내고 되찾지 않는다. 바리는 칠성이에게 의지하거나 일방적 애착 관계나 의존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게 아닌, 진심으로 칠성이를 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바리가 칠성이를 붙잡지 않고 보내주는 장면을, 바리가 자기의 상처 입은 내면아이인 칠성이를 통해 바리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상처 입은 사람이 자기의 상처를 직면하고 자기 상황이 어려운 상황임을 직면하는 것은 자기 마음 상태를 진단하는 것이자 상처 치유의 시작점이다. 이러한 자기 상처에 대한 직면을 통하여, 상처 입은 자기 마음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모습이, 바리가 칠성이를 되찾지 않고 떠나보내고 있는 장면으로 형상화(形象化)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다.

바리는 상처 입은 칠성이를 보듬어 주지만, 칠성이에게 과도한 애착 관

계를 형성하지 않고 오히려 칠성이가 잘되기를 바라며 떠나보낼 줄 안다. 바리는 칠성이를 진심으로 위하며 비록 섭섭함이 있지만 사랑받고 싶은 자기 스스로의 모습을 객관화해서 바라보고, 자기의 상처 입은 내면이라고도 볼 수 있는 칠성이를 진정으로 위하는 선택을 내리고 있다. 칠성이를 위하는 선택은 곧 자기를 위하는 선택이었고, 이러한 바리의 선택은 바리가 칠성이를 통해 자기의 상처 입은 내면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으며 거리를 둘 수 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바리는 상처 입은 칠성이를 통하여 조금씩 자기의 상처를 치유하고 객관적으로 그 상처를 바라볼 수 있도록 변화하고 있다.

산을 내려와 과수원 모퉁이로 돌아드는데 낮익은 칠성이의 짓는 소리가 들려왔다.

...(중략)...

나 이제 아버지 오마니 찾으러 간다. 식구들 모두 만나문 우리 함께 모여서 살자꾸나.

그랬더니 칠성이의 대꾸가 가슴속에서 우렁우렁 울려나왔다.

바리야, 나두 데려가줘. 나두 너를 도와줄게. 목줄을 풀어줘.(86쪽)

칠성이와 나는 띄약별 아래를 정처도 없이 걸어갔다.(87쪽)

하지만 바리 곁을 떠난 칠성이는 곧 칠성이가 바리 곁으로 되돌아온다. 칠성이는 바리가 부모님을 찾아 길을 떠나겠다고 결심한 순간, 자발적으로 바리 곁으로 다가온다. 바리가 길을 떠날 때 동반자가 되어 주겠다는 것이다. 두 사람은 띄약별 아래를 함께 동행한다. 바리가 칠성이에게 진심 어린 관심과 보살핌을 제공해 주었기 때문에 칠성이는 조금씩 자랐다. 그리고 바리가 힘든 일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 오자, 칠성이는 자발적으로 바리를 도와주러 찾아온다.

칠성이가 도움 받는 존재에서 도움을 주는 존재로 변화해 가는 이러한 바리-칠성이의 관계 양상 변화는 칠성이의 성장을 의미하는 동시에, 바리의 상처 입은 내면아이가 서서히 성장해 나가고 있다고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처음에는 바리의 일방적 도움을 받는 칠성이가 바리에게 도움을 주는 존재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바리가 상처 입은 내면아이인 칠성이를 돌보고 이러한 ‘내면아이’ 칠성이가 성장해 바리를 도와주는 존재로 변화한 것은, 바리의 내적 성장이라고도 해석해 볼 수 있다. 바리가 자기의 내면의 상처를 외면하지 않고 관심을 주고 노력한 끝에 자기의 상처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되었고 이제는 자기를 돌볼 수 있도록 성장하게 된 것이다.

칠성이는 더 이상 바리의 상처 입은 내면아이가 아닌, 상처를 치유한 내면아이로 성장·변화하게 되었다. 칠성이는 외적으로는 바리로부터 도움 받는 존재에서 도움 주는 존재로 변화하였고, 내적으로는 바리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하는 존재에서 바리에게 직접 힘을 줄 수 있는 존재로의 변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러한 바리의 변화 과정은, 이후에 칠성이가 바리를 구하려다 죽는 모습을 통해 구체화(具體化)된다.

바보같이 제 새끼를 데리고 피난 가는 멧돼지 식구에게 덤벼들다니, 칠성이는 아마도 주인을 지키겠다고 낫선 야생동물에게 덤벼들었을 것이다. 멧돼지 부부는 사력을 다하여 이 침입자를 방어했을 테고, 칠성이는 멧돼지 어금니에 배가 찢겼다. 그리고 었친 데 덮친 격으로 불길히 쉽솔고 지나갔다. 나는 칠성이의 머리를 불안고 소리죽여 울었다. 네가 이 세상에 하나밖에 남지 않은 가족이었는데, 이젠 나 혼자 이 넓은 세상에 남았다.(97쪽)

바리와 함께 길을 떠난 칠성이는 피난 멧돼지들이 바리를 공격하는 줄로 오해하고 멧돼지들로부터 바리를 지키겠다고 멧돼지들에게 덤벼들었다가

공격을 당해 죽는다. 바리로부터 도움을 받아 성장한 칠성이가 위협에 빠진 바리를 지키기 위해 희생적으로 뛰어들어 죽임을 당하는 것이다.

이러한 칠성이의 죽음은 단순히 물리적인 죽음으로만 의미가 있지 않다. 오히려, 칠성이가 바리를 구하기 위한 희생적 죽음을 맞이함으로써 그동안 상처 입은 내면아이로서의 칠성이가 죽고 건강하게 성장한 칠성이가 바리 내면에 더 깊이 내면화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동안의 칠성이는 바리의 도움을 받아 성장하는 상처 입은 내면아이였다면, 이 장면에서의 칠성이는 바리를 지키기 위해 희생적 죽음을 선택하는 성장한 내면아이의 모습이다. 칠성이는 이전보다 더 성장한 내면아이의 모습으로 바리 마음속에 이전보다 더 깊이 내면화되었다. 비록, 물리적으로는 죽어 바리와 만날 수 없게 되었으나, 내적으로는 더욱 깊이 바리 마음속에 자리하게 된 것이다.

칠성의 죽음은 기존의 상처 입은 내면아이로서의 칠성이와, 바리가 물리적으로 완전히 결별함을 보여주고 있다. 바리는 상처 입은 내면아이인 칠성이의 모습을 통해 자기의 상처 입은 내면아이를 객관화해서 바라볼 수 있었다. 그리고 칠성이를 보살피는 과정에서 상처 입은 내면아이의 성장을 경험하였다. 칠성이가 물리적으로 죽음으로써 이전의 상처 입은 내면아가 죽고, 보다 성장한 바리의 현실 자아와 내면아가 바리 마음속에 자리함을 보여주었다.

칠성이의 죽음은 바리 속에 상처 입은 내면아이와의 완전한 결별을 의미하는 동시에, 바리 안에 건강한 내면아이로서 칠성이가 내면화되어, 바리와 더욱 깊이 내적으로 상호작용하며 바리를 지키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더 이상 칠성이는 상처 입고, 일방적으로 도움받는 존재가 아니라 도움을 베풀고 타인을 위해 기꺼이 자기를 희생할 수 있는 존재로 변화한 것이다.

3) 상처 입은 내면아이에서 경이로운 내면아이로의 통합

나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찾으러 부령 못미처까지 갔다가 칠성이마저 잃고 소리없이 움집으로 돌아왔다.(100쪽)

나는 할머니의 죽음과 조선까지 식구들을 찾아갔던 일이며 칠성이가 죽은 것까지 자세히 얘기했다.(101쪽)

바리가 부모를 찾으러 길을 떠났다가 할머니와 칠성의 죽음을 경험한 뒤, 다시 움집으로 돌아오게 되는 장면이다. 날 때부터 세상에서 버려진 존재인 바리는 이제 또다시 완전히 혼자가 되었고, 바리가 원하던 원하지 않던 홀로 세상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칠성을 돌보면서 내면의 성장을 경험한 바리일지라도, 마음에 큰 상실감이 있었다고도 볼 수 있다. 부모를 찾을 수 없다는 좌절과 그동안 성장 과정에서 의지하던 대상들과의 물리적인 결별은 바리에게도 큰 아픔이 되었을 것이다.

며칠 동안의 엄청난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왔다.

바리야, 나야 나.

무엇인가가 어둠속에서 나를 불렀다. 그것은 파랗게 빛나는 두 개의 빛이었
다. 나는 대번에 그제 칠성이라는 걸 알 수 있었다. 나는 지난 몇 년 동안 가끔씩
칠성을 꿈에 보곤 했다. 그러나 칠성이가 생시처럼 이렇게 나에게 말을 걸
어온 것은 처음이었다.

...(중략)...

칠성은 자꾸만 뒤를 돌아보면서 종종걸음으로 뛰어나가다가 멈추다가
했다.

...(중략)...

우리 바리 왔구나!

할머니, 어데서 오십네까?

...(중략)...

할머니가 도와줄 테니까다 어려울 땐 **칠성일 따라** 내게 몰으러 오라.(124 ~125쪽)

하지만 홀로 남은 바리에게 칠성이가 찾아온다. 물리적으로 직접 찾아오는 게 아닌, 마음속으로 칠성이가 바리를 찾아와 말을 걸어온다. 의지할 대상 모두를 잃고 세상에 홀로 남겨진 바리에게 칠성이가 마음속 음성으로 찾아온 것이다. 칠성이는 홀로 남겨진 바리에게 마음속 음성을 찾아와 말을 걸어 위로해 주고, 그리운 할머니 곁으로 인도해 준다. 이제는 현실에서는 존재하지 않지만, 칠성이는 바리를 바리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치료사인 할머니에게 직접적으로 인도해 주는 역할을 한다.

바리는 홀로 남겨지고 며칠 동안의 고된 노동으로 엄청난 피로에 휩싸여 있는 상황에서, 칠성이를 통하여 마음속의 의지할 대상인 할머니에게 갈 수 있게 된다. 칠성이는 육체는 죽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바리 곁에 남아서 바리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고 있었다. 상처 입은 내면아이인 칠성이가 현실의 자아인 바리로부터 도움을 받다가, 이제는 성장해 마음속에서 바리를 지지해 주고 치료해 주며 더 큰 치료사인 할머니의 곁으로 인도해 주는 모습으로 변화한 것이다.

배의 바닥에 등을 대고 누워서 나는 눈을 감고 **넋을 허공에 띄웠다. 그건 꼭 옷을 벗어버리거나 껍질을 벗는 것과는 같았다. 소리는 나지 않았지만 무엇인가 부드러운 천이 찢어지는 느낌으로 내가 몸에서 벗어나 어둠속에 떠오르곤 했다.** 그리고 나면 하얀 털이 눈부신 칠성이가 나타나 내 앞에서 꼬리를 흔들었다. 우리는 앞서거나 뒤서거나 하면서 사방이 캄캄한 가운데 달빛의 띠처럼 계속되는 오솔길을 따라 흘러갔다. 한참을 가다보면 가볍게 바람이 불어오는 강변이 나왔고 다리가 보였다. 강물 쪽은 여전히 시커멓게 보였다. 등불을 비춘 것처럼 다리만이 흰하게 밝혀져 있는데 그 위로 할머니가 흰 치맛자

락을 팔랑이며 걸어왔다.

바리아, 따라오라.(129~130쪽)

위 장면은 <바리데기> 서사무가에서 바리공주가 생명수를 찾아 서천을 향해 가는 것처럼, 소설 『바리데기』 속 바리가 ‘바리’라는 이름의 운명을 짊어지고 영국으로 향해 가는 배 안에서 죽을 고비를 넘기는 장면이다. 바리는 푸젠성(福建省) 사문(廈門)을 거쳐 적도를 지나 영국으로 가는 배 안의 비좁은 컨테이너 속에서 초열지옥과 굶주림과 갈증을 느끼며 짐승처럼 변해갔다. 이러한 고난 속에서 바리는 여러 겹의 저승을 통과해 갔는데, 컨테이너 안에서 죽을 것 같은 어려움을 견디면서 바리는 또 한 번 칠성이를 만난다.

이전 장면에서 마음속으로 칠성이를 만나는 것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만난다. 바리가 마치 번데기가 껍질을 벗고 나비로 변태하듯, 껍질을 벗는 것 같은 느낌을 느끼면서 몸과 넋이 분리되는 경험을 하게 된 것이다. 몸과 넋이 분리된 바리에게 칠성이가 나타나 저승길로 인도하는 마지막 길목에서 있는 할머니에게로 인도한다. 지금의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을 감당해야만 하는 길로 나아가는 문턱에서 바리는 할머니에게 함께 가지 않느냐고 묻지만, 할머니는 여기까지가 우리 세상이니까 바리 홀로 남은 길을 가야만 한다고 대답한다. 바리는 부모를 다시 만나고 자기와 세상 사람들을 살릴 생명수를 찾아가는 과정을, 이제부터 오롯이 홀로 감당해야 하는 것이다.

바리가 할머니의 도움 없이 혼자서 감당해야만 하는 길을 떠나기 전에, 껍질을 벗는 것과 같은 느낌을 느끼면서 몸과 넋이 분리되는 경험을 한 것은 기존의 바리가 칠성이를 돌보며 칠성이와의 상호 의존적 관계를 맺었던 모습에서 독립된 주체(主體)로 변화하는 모습을 형상화(形象化)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기존의 바리가 상처 입은 내면아이인 칠성이를 완전히 객관화하여 기존의 칠성이를 간직한 자아와는 완전히 분리되고, 상처 입은 내면아이와 완전히 결별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이다. 바리는 더 힘든 저승길로 홀로 떠나기 전에 기존의 상처 입은 내면아이와 완전히 결별하여 이전보다 더욱 성장한 내면아이인 칠성이를 내면에 간직한 새로운 바리의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바리의 내적 변화가 몸과 낮이 분리되면서 껍질을 벗어버리는 듯한 경험으로 형상화되고 있다고 해석해 볼 수 있다. 바리는 상처 입은 칠성이를 돌보는 과정에서 자기의 상처 입은 과거의 모습을 객관화하고 자기의 상처를 치유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상처 입은 내면아이가 경이로운 내면아이로 변화·통합하는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다.

내가 없어진 다리를 찾으라고 풀밭을 이리저리 거닐다가 그제야 생각이 나서 주머니에서 하나 남은 낙화를 꺼냈다. 낙화를 쥐고 강물에 힘껏 던졌다. 오색무지개가 빛나더니 강 위에 다리가 나타났다. 칠성이가 꼬리를 흔들며 먼저 쪼르르 다리로 올라섰고 우리는 강을 건너갔다. 강은 잔잔하고 처음처럼 시끄러운 비명도 들리지 않았다.

...(중략)...

칠성이가 마음을 전했다.

나는 내가 어디 살아도 찾아갈 거야.

내가 그 녀석을 안으려고 손을 내밀었더니 역시 가뭇, 하고 사라졌다.(143쪽)

할머니를 떠나 홀로 저승길을 떠나는 바리의 걸을 칠성이는 계속 남아 지켜준다. 이전에 바리의 도움을 받으며 바리 곁에 있던 칠성이와는 다른 모습으로, 이제는 홀로 남겨진 바리를 오롯이 설 수 있도록 지켜주는 존재로서의 칠성이다. 칠성이는 저승길로 향하는 바리에게 어디 살아도 찾아가겠다는 약속만을 남긴 채 사라진다. 바리는 홀로 있지만 칠성이와 함께 있

다. 또한 바리는 칠성이와 함께 있지만 홀로 있다. 더 이상 바리와 칠성이는 서로 다른 존재가 아니라, 바리 안의 성장한 내면아이로서의 또 다른 바리의 자아다. 바리의 상처 입은 내면아이가 경이로운 내면아이로 통합된 것이다.

나는 슬퍼서 살 수가 없어. 제발 나를 위로해줘.

바리야, 괜찮아, 너는 잘해낼 거야.

칠성이는 그렇게 마음의 말을 남기고 앞장서서 뛰어간다. 나도 그 뒤를 따라 하얀 길을 미끄러지듯 간다.(262~263쪽)

바리는 저승길로 떠나고, 저승길에서의 어려움을 홀로 오롯이 감당해 나갔다. 바리가 감당한 저승길의 모습은 그야말로 죽음과 슬픔의 길이었다. 바리의 남편인 알리는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 파키스탄으로 가게 되어 바리와 헤어진다. 그리고 바리와 알리 사이의 딸 홀리야 순이는 죽는다. 중국에서 일할 때 바리를 도와주었던 상언니가 찾아왔을 때, 바리가 홀리야 순이를 상언니에게 잠시 맡겨두고 빨래방에 간 사이에 상언니가 홀리야 순이를 팽개쳐 두고 돈을 들고 도망간 것이었다. 그렇게 바리는 남편과 헤어지고, 딸도,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 모두를 잃었다. 바리는 저승길에서 죽음과 슬픔을 감당하고 있었다.

이러한 시련은 내적 성장을 경험한 바리에게도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바리도 위로가 필요했다. 바리가 남편과 헤어지고, 딸을 잃고 상실감에 빠져있을 때 칠성이를 떠올리자 칠성이가 바리의 마음속에 나타나 바리를 위로해 주었다. 칠성이는 괜찮다고, 잘 해낼 수 있다고 바리를 위로해 주고는 바리가 계속해서 길을 갈 수 있도록 힘을 준다. 바리를 앞서서 뛰어나가면서 바리에게 힘을 북돋고 바리는 힘을 얻어 칠성이를 따라 다시 길을 떠난다. 가장 슬프고 힘든 순간에 칠성이로부터 위로를 얻고, 비로소 바리

는 서천의 끝 가장 슬픈 지옥의 끝에 다다르게 된다.

이처럼 칠성이는 바리가 가장 힘들 때, 바리를 지켜준다. 칠성이는 바리를 위로해 주고 다시 길을 떠날 수 있도록 내면에서 힘을 북돋아 준다. 바리와 내적으로 하나가 된 경이로운 내면아이인 칠성이가 이제는 바리 곁에서 바리를 지켜주고 있다. 바리가 극한의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자신을 지키면서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바리의 도움을 받고 성장해 바리와 하나가 된 바리의 ‘내면아이’ 칠성이 덕분이었다. 칠성이는 더 큰 치유자인 할머니의 곁으로 바리를 인도·매개하는 과정 속에서 바리를 지지해 주고 치유해 주고 있는 것이다.

상처 입은 내면아이	현실 자아	상처 입은 치유자
칠성이	바리	할머니
칠성이=바리(칠성이를 통해 자기를 객관화)		
칠성이=바리=할머니(칠성이를 품은 바리가 할머니와 같은 치유자로 변화)		

지금까지 바리와 칠성이의 관계가 어떤 양상으로 변화했는지 정리하자면, 비슷한 상처를 갖고 있는 서로 다른 존재인 칠성이와 바리가 서로 구별(區別)되어 따로 존재했었다. 바리는 칠성이의 모습을 통해서 자기의 상처 입은 내면아이를 발견하고, 칠성이를 돌봐준다. 바리는 칠성이를 돌보는 과정을 통해서 자기의 상처를 객관화하고 상처 입은 내면아이(칠성이)와 경이로운 내면아이의 통합의 과정을 경험한다.

이를 통해 더 이상 바리와 칠성이는 서로 다른 존재가 아닌, 하나의 존재로 변화한다. 바리는 내면에 통합된 자아인 칠성이로부터 힘과 위로를 얻으며 길을 향해 나아간다. 험난한 여로를 거치며 새로운 자기와 완전한 자아를 발견한 바리데기는 수난의 해결사로서 또한 고통의 치유사로서³⁵⁾의

35) 양진오, 「세계문학으로서의 한국문학, 그 위상과 전만-황석영의 『바리데기』를 중심으로」, 『한민족어문학』 51, 한민족어문학회, 2007, 77쪽 참조.

존재로 변화하며, 상처 입은 칠성이와의 통합을 경험하게 되었다. 이후에 바리는 자기 내면의 칠성이와 상호작용하면서 더 큰 차원에서의 치유자라고도 볼 수 있는 할머니에게로 간다. 바리는 타인을 위해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존재로 변화해, 진정한 치유자이면서 경이로운 내면아이와의 통합이 이루어진 존재인 할머니와도 통합되는 과정으로 나아가게 된다.

4. 상처 입은 내면아이에서 상처 입은 치유자로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칠성이가 바리의 친밀하면서, 직접적으로 바리를 곁에서 보살펴 주는 치유자였다면, 할머니는 칠성이처럼 친밀하기 보다는 좀 더 높은 차원의 치유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치유자의 원형으로서 서로 비슷하면서도 다른 칠성이와 할머니의 특징을 살펴보고, 바리가 어떻게 상처 입은 내면아이를 치유하고 경이로운 내면아이로의 통합의 과정을 거쳐 할머니와 같은 ‘진정한 치유자’로 성장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분석하고자 한다.

할머니는 하늘의 별을 받을까봐 겁도 나고 에미도 불쌍하고 손녀들고 가 없어서 찬물을 사기그릇에 한 사발 떠다 소반에 받쳐서는 뒤꼍에 앉아서 두 손을 짹짹 비비며 치성을 드렸다.(10쪽)

할머니는 평소애 간혹 헛것들을 직접 보고 그것들이 서로 쪼고 까불며 애기 나누는 소리를 듣기도 했다.(15쪽)

세상의 끝까지 돌아다니면서 온갖 고생을 겪다가 할머니가 내 이름을 바리라고 부르게 된 뜻을 스스로 깨우치게 된 것은 훨씬 나중의 일이다.(13쪽)

할머니도 바리처럼 헛것을 보고 신과 소통할 수 있는 무당의 면모를 갖고 있었다. 바리가 할머니 이후에 태어났으니 고조 할머니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무당의 면모를 바리가 할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할머니는 바리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기도 하고 신에게 직접 치성을 드리며 신과 소통하는 존재였다. 신과 소통하며 무당의 면모를 가진 할머니는 바리를 지켜주고 보살펴 준다. 이름이 없는 바리의 이름을 지어주고, 지켜준다.

할머니, 생명수 얻은 거는 빠졌다.

오오 기래, 할머니가 깜박했다. 생명수 약수를 달랬더니 그놈에 장승이가 말하는 거라. 우리 늘 밥해 먹구 빨래허구 하던 그 물이 약수다.

기럼 공주님이 헛고생한 거라?

바리야, 기진 아니란다. 생명수를 알아보는 마음을 얻었지비.

거 무슨 말이웨?

이담에 좀더 살아보문 다 알게 된다. 떠온 생명수를 뿌레주니까니 부모님도 살아나고 병든 세상도 다 살아났다. 그담부턴 바리 큰할미는 우리 속에 살아 계신다누. 내 속에 네 속에두 있덴 하지.(81쪽)

할머니는 바리에게 옛이야기 <바리데기>를 들려준다. 부모에게 버려진 바리에게, 옛이야기 <바리데기>를 들려주며, 옛이야기 속 주인공인 바리 역시도 버려졌지만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생명수를 구하기 위한 구약여행을 떠난다는 이야기를 해준다. 옛이야기 속 바리가 그토록 애타게 찾던 생명수는 다른 게 아니라 무장승의 아내로 살며 힘들게 일할 때 사용했던 물이었다. 할머니는, 생명수가 무엇인지 알아보는 마음을 얻게 된 것이 바리가 구약여행을 통하여 얻은 것이라고 했다. 바리가 노동하면서 사용했던 생명수로 부모를 살린 뒤에는, 바리의 큰할머니도, 바리의 부모님도 다시 살아나 바리 마음속에 거하게 된다는 것을 말해준다.

소설 『바리데기』에서 할머니는, 바리에게 <바리데기> 옛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바리가 앞으로 짊어지고 가야 할 운명과 그가 감당해야 하는 삶의

의미를 심어준다. 소설에서 할머니는 바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바리의 인생과 그의 인생에서 펼쳐질 이야기를 알려주면서 바리를 보살피 주고 양육해 준다.³⁶⁾ 할머니는 바리의 내면을 공명(共鳴)시킬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해줌으로써 가장 중요하면서도 직접적인 양육자 역할을 해 주고 있는 것이다.

아버지와 할머니의 아들손주 보려는 꿈을 수 없는 소망 때문에 엄마는 견습 합하여 고작 일년여쯤 출근해보다가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21쪽)

하지만 할머니가 처음부터 바리를 특별히 아꼈던 것은 아니었다.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할머니도 바리를 원하지 않았다. 할머니 역시도 아버지가 아들을 원했던 것처럼 바리가 딸이 아니라 아들이었기를 바랐다. 태어나고 보니 딸이었던 바리를 안타깝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바리를 아껴준 것이었지 처음부터 딸인 바리를 원하고 좋아했던 것만은 아니었다.

이런 부분을 근거로 이해해 볼 때, 할머니는 친근하고 늘 곁에서 지켜주는 칠성이와는 조금 다른 모습의 치유자로서 존재한다. 칠성이보다는 차갑고 냉정하기도 하면서, 또 마음의 한 편에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멀리 있는 신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공의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에서 갈등하다가 자기 목숨을 희생하여 인류를 구원한 신³⁷⁾이 있는 것처럼, 할

36) 문학치료학에서는 ‘인간(人間)이 바로 문학(文學)이며, 문학(文學)이 곧 인간(人間)’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문학’으로 ‘인간’이라는 ‘문학’을 치유한다고 한다. 소설 『바리테기』에서 바리의 할머니가 바리에게 옛이야기 <바리테기> 이야기를 들려주며 바리를 보살피 주는 행위를, 바리 내면의 ‘자기서사’에 옛이야기 <바리테기>라는 ‘작품서사’를 공명(共鳴)시켜 바리가 가진 기존의 ‘자기서사’를 건강한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문학치료 행위라고도 이해할 수 있다(정운채, 『문학치료학의 서사이론』, 『문학치료연구』 9, 한국문학치료학회, 2008.).

37) 기독교에서 예수는 인간의 죄를 미워하면서도 그 죄로 인해 인간이 여호와의 심판을 받을 것을 불쌍히 여겨서 자기가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그 죄값을 대신 치르며 죽고 부활했다. 『바리테기』에서 할머니도 다른 사람과 똑같이 딸인 바리를 원하지 않기도 하지만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었다. 예수와 여호와는 두 마음에서 갈등

머니 역시도 바리를 원하지는 않는 한편으로는 불쌍히 여기기도 해서 바리를 보살피 주고 사랑해 주었다. 바리에게 할머니는 칠성이와 같은 치유자이기도 하면서 칠성이보다는 조금 멀리 떨어진 치유자라고도 볼 수 있다.

엄마는 할머니에게 신신당부를 했다. 위원장 동지에게도 말해주었다는 것, 아버지는 늦어도 한 두어 달 지나면 꼭 돌아오게 된다는 것, 나라에 공로가 많은 사람이니 오해가 풀릴 거라고도 했다.(62쪽)

강물이 차갑기는 했지만 미꾸리 아저씨가 우리 두 아이를 옆구리에 끼다시피 하고 건너서 별로 고생은 하지 않았다. 오히려 할머니가 발을 헛디뎠 두어 번 넘어졌다.(64쪽)

그녀의 팔을 잡는데 할머니가 옆으로 스스로 넘어갔다. 할머니의 팔이며 어깨가 뻗뻗했다.(84쪽)

그렇다고 해서 할머니는 그 자체로 신이 아니다. 할머니는 다른 사람과 똑같이 고통받고 넘어지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 할머니는 연약하지만 바리에게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될, 바리에게 꼭 필요한 보살핌과 사랑을 주는 신과 같은 존재다. 절대적이거나 완전하지는 않지만, 특별히 바리에게만큼은 꼭 필요한 사랑과 보살핌을 주는 존재가 바로 할머니인 것이다.

칠성아, 나는 지금 할머니가 보구 싶다.

응 그래, 할머니가 널 기다리구 계신다.(202쪽)

할머니가 주름이 오글오글하게 가만히 웃는다. 거름, 세상이나 한 사람이나 다 같다. 모자라구 병들구 미웁하구 욕심 많구.

내가 덧불인다.

하는 신이기도 하면서 이러한 점 때문에 인간과 멀리 떨어져 있다고 느껴지기도 하는데, 할머니 역시도 두 마음이 있었다는 점에서 바리에게는 칠성이에 비해 가깝지만은 않은 존재라고도 볼 수 있다.

가연지.

우리 바리가 용쿠나! 가연은 걸 알문 대답을 알게 된다니까디.(203쪽)

할머니가 내 어깨를 잡아 돌려세운다. 내 등뒤에 순이가 와서 서 있다. 순이는 할머니와 똑같이 인형처럼 작은 흰치마저고리를 입고 칠성이와 나란히 서 있다. 나는 순이를 안으려고 두 팔을 벌리고 다가가는데 그애는 칠성이처럼 뒤로 물러난다. 나는 허우적거리며 다가서지만 순이는 바로 그만큼 뒤로 물러난다. 할머니가 말한다.

애쓰지 말라. 세상에 간직한 네 몸은 네가 아니야. 네 녀에 집이지. 몸을 버리구 떠나오문 너두 우리처럼 된다. 슬픈 거나 기쁜 거나 다아 세상에 속해 있지.(265쪽)

바리가 알리와 결혼을 결심하고 나서 할머니를 떠올리는 장면이다. 할머니는 바리가 남편 알리와 잠시간 헤어져야 하는 순간과, 딸 흘리아 순이를 잃기 직전에 나타나 이러한 깨달음을 준다. 바리가 타국에서 고된 노동을 하면서 남편을 만나고 딸을 낳고, 남편과 헤어지고, 딸을 잃는 과정은 바리가 저승길을 가는 과정과 닮아있다고도 볼 수 있다. 이렇게 저승으로 가는 과정의 길목에서 바리는 칠성이를 통하여 할머니를 찾고, 할머니는 바리에게 깨달음을 주고 길을 제시해 주는 역할을 한다.

할머니는 직접적인 신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바리에게 도움을 주는 방식은 신과 같다고도 볼 수 있다. 바리에게 깨달음으로 인도해주고 바리가 깨달음을 얻었을 때 지지와 격려를 보내준다. 그리고 할머니는 바리에게 세상살이에 대한 생각을 직접 알려주기도 한다.

칠성이가 나에게 알려준다.

맨 처음에는 불바다, 그다음에 피바다, 마지막으로 기러기 깃털도 가라앉는 모래바다를 지나면 무쇠성이 나온다.

거기가 어디야?

서천의 끝.(264쪽)

아아, 끔찍해.

칠성이가 마음속으로 말한다.

저건 너희가 세상에 지어놓은 지옥이야. 그래서 여기에두 똑같이 있단다.

...(중략)...

내가 칠성이에게 묻는다.

저건 어느 도시야?

저승의 배들이야. 피바다 위에 머물고 있다.(265~266쪽)

너는 저 안에 들어가서 뉘살이 꽃과 생명수를 가져와야 해.

칠성이가 일렀지만 나는 배에서 내리지 않고 망설인다.

무서워, 나 혼자 못 가겠어.

옛적부터 바리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전해 내려온단다. 내가 구름다리
에 발을 디뎠는가 했는데 벌써 땅 위로 내려와 있다. 칠성이가 입에 물고 있던
보통이를 뱃전에서 훌쩍 던져준다. 집어서 헤쳐보니 구리방울과 구리거울과
수수곱장떡이 들었다.

할머니가 네게 전해준 거야. 가지구 가면 쓸데가 있을 거다. 다시 여기 와
서 나를 부르면 배가 온다.(271쪽)

소설 『바리데기』 후반부에서는 칠성이도 할머니처럼 바리에게 길을 가르쳐주고 깨달음을 준다. 바리가 마음속에서 장면들을 상상하며 저승으로 가고 끝내 서천의 끝에 다다르기까지 칠성이가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바리를 도와준다. 소설 『바리데기』 후반부에서 칠성이는 바리에게 직접적으로 가르쳐주고 길을 안내해 주는 할머니와 같은 치유자의 모습으로 칠성이도 바리의 마음속에서 직접 가르쳐주고 인도해 주는 치유자의 모습을 보인다.

칠성아 칠성아.

배가 나타나고 구름다리가 내려온다. 내가 계단에 발을 던자마자 뱃전에 올라서고 칠성이가 꼬리를 한들거리며 반긴다.

우리가 판옥의 망루에 오르자 배는 천천히 떠나가기 시작한다. 나는 기운 없이 말한다.

생명수를 못 가져왔어.

칠성이는 이제 대답없이 꼬리만 살랑대고 있다. 배는 모래 바다 위를 미끄러지듯 흘러간다. 아직도 여러 가지 복색의 사내들이 팔을 휘젓고 외치며 모래 속에 사라졌다가 나타나는 것을 되풀이하고 있다. 나는 아래를 넘겨다 보며 중얼거린다.(279쪽)

칠성이는 바리를 가르쳐주는 방식에 있어서 할머니와는 조금 다른 면(面)도 있다. 할머니는 바리가 직접 깨달음을 얻고 홀로서기 하기를 바라는 하지만 바리가 깨달음에 이르기까지 그 도움이 직접적이다. 반면에 칠성이는 바리가 스스로 깨닫기를 기다려 주고 있다. 생명수를 찾으러 서천의 끝까지 갔지만 생명수를 찾지 못했다고 말하는 바리에게, 진정한 생명수란 타인을 위해 흘린 바리의 눈물이었음을 깨닫기를 바라며 칠성이는 그저 대답 없이 꼬리만 살랑대고 있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칠성이가 바리를 거리를 두고 바라보는 태도는, 상처 입은 바리의 내면아이가 경이로운 내면아이와 완전히 통합되어 할머니와 같은 치유자로서 바리를 보살피 주고 지켜주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바리는 칠성이를 돌보면서 자기의 상처 입은 내면아이를 들여다보게 되었다. 그리고 상처 입은 내면아이를 객관화하게 되었고 이제는 상처를 치유하고 자기의 잠재력을 발휘하는 경이로운 내면아이로 성장하게 된 것이다. 바리는 이렇게 진정한 치유자라고도 볼 수 있는 할머니와 동일한 치유자로 성장한 칠성이와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이제 마음속의 경이로운 내면아이와 대화하면서 홀로 서승길로 향하는 삶의 무게를 감당하고 있는 것이었다.

이와 같이 할머니와는 다른 칠성이의 존재와 특성은, 소설 『바리데기』에서 특징적으로 부각 되는 소재다. 서사무가 <바리데기>에서는 크게 강조되는 소재라고 볼 수 없는 칠성이 캐릭터는 황석영 소설 『바리데기』만의 독특한 스토리텔링 방식이기도 하다. 서사무가 <바리데기>에서는, 칠성이 캐릭터와 같이 친근하고 귀여운 이미지의 조력자나 치유자가 나타나지 않는다.

서사무가 <바리데기>에서, 약수를 구하기 위해 길을 떠난 바리가 만난 스님이나, 무장승은 바리가 약수를 구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핵심적인 인물들이지만, 이들은 모두 바리를 힘들게 하거나 부탁을 들어줘야만 하는 어려운 입장으로 바리에게 등장한다.

① 동해안지역본 구약여행

㉠ 저 딸 자식 어린 거라도 자꾸 간다고 서우고 떠나가니 붙잡지도 못하고 그양 눈물로만 서로이 작별하고 베리데기 거동보소 하루 가고 이틀 가고 사흘 가는데 베리데기가 남북을 차려서 총총 걸음으로 떠나가다 보니까

㉡ 베리데기가 한 곳을 찾아 가니 불이 뻥하게 보이는 그 곳이 바라 당동카니 단장은 어찌 높이 쌓났던지 담장은 높고 큰 입구자 개와집 대문은 잠가 놓고 대문 앞에 간판을 써 붙였는데 달밤에 달이 우중충 해서 달밤에 그 간판을 일라 보니 팔봉사 절이구나

㉢ 거기서 여러 스님들전에 하직하고 서천서역을 떠나간다 어디마름 가다가 맨날 매칠로 몇 달로 가든지 간에 한 곳을 저우 당도하여 어떤 백발 노인이 흘저 에다가 소를 매 가지고 큰 밭을 갈고 있구나 (중략) 어느 질로 여러 가더니끼니 알수가 있나 거기 가다가 보니까. 어떠한 호호한 할머니가 노할머니가 빨래를 두 통을 해놓고 씻는데

㉣ 고생고생하고 맏날 매칠 맏날 맏년을 찾아갔더니간에 동대산을 당도하는데 한 곳을 당도하니 그 때 마침에 동대산 동대천 동수자라 키는 수자 산정에는 천상 사람인데 베리데기도 천상사람이지마는 동수자도 천상 사람이라

① 동대산 끝을 마저 내려가니깐 비문에 글을 서놨는데 어떤 글이 서 있노
그 비문 글자로 가로사대 사지 생살문이오 요수하는 문이라. 그 문을 열고
(중략) 그러나 이 먼먼 길로 어찌 약수를 귀하러 가겠습니까 여기서 삼천리
를 가야 됩니더 (중략) 한 곳을 당도하니 그 곳이 서천서역 약수탕이로구나(김
석출 구연, 「베리테기굿」)³⁸⁾

② 황석영 소설 『바리테기』

기러문 나두 떠나올래.

아니, 할 일이 좀 남아 있지 않네? 너 가구 오는 길에 질문하는 사람덜 많이
만난다구.

응, 옛말에 바리공주두 저승 가서 돌아가주구 오갔다구 기렸대서.

오오, 기렸대. 글가구 생명수두 찾아내야지비.

할머니가 바다를 향하여 돌아서자 나무로 만든 조선배 한 척이 나타난다. 배
는 내 키의 다섯 배 열 배만큼 컸는데 황포 돛대가 두 개나 달렸고 위로 오를
수 있도록 구름다리가 내려와 있다. 할머니가 내 등을 밀어준다.

타라!(255~256쪽)

김석출 구연의 「베리테기굿」에서 바리가 구약여행을 하는 부분(①)을
보면, 천상사람인 동수자는, 수년을 고생하면서 동대산으로 동수자를 찾아
온 바리에게 비문을 통해 약수가 있는 곳을 알려준다. 바리는 이미 몇 년을
고생하면서 동수자를 찾아왔는데, 동수자는 매정하게도 약수(藥水)를 구
하려면 여기서 또 삼천리를 가야 한다고 한다. 「베리테기굿」에서 동수자는,
바리가 약수를 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존재이기는 하지만, 약수를 거
저 주지 않고 바리에게 많은 고생과 어려움을 겪게 한 뒤 약수가 무엇인지
알려준다.

소설 『바리테기』의 초반부에서는 할머니가 바리에게 옛이야기 <바리테

38) 윤준섭(2012), 앞의 논문, 39쪽에서 재인용.

기>를 들려주며, 생명수의 정체에 대해서 알려주었다. 이후 소설의 스토리에서 바리는 헤어진 부모를 찾기 위해 머나먼 타국땅으로 가 고된 구약여행을 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바리는 할머니를 만나고 싶다고 말하며 할머니를 그리워하지만, 할머니는 생명수를 구할 수 있는 서천서역국으로 가는 배에 “타라!”라고 말하며 바리의 등을 밀어줄 뿐(②), 생명수를 구하는 험난한 길은 바리 스스로 감당해야 하는 무게였다.

「베리데기굿」에서 동수자가 약수가 있는 곳을 딱딱한 비문을 통하여 알려주듯, 소설 『바리데기』의 할머니도 친근하게 다가오는 칠성이와는 다르게 직접적이지만 강하고도 냉정한 태도로 바리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서사무가 <바리데기>와는 달리, 소설 『바리데기』에서는 친근한 강아지 칠성이 캐릭터를 통하여, 가볍지만은 않고 힘든 삶의 문제를 친근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여기게 하며, 삶에 대해 긍정적이고 명량한 마음가짐으로 대할 수 있는 친숙한 태도의 지향을 보여주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그날, 알리와 나는 아침에 집을 나와 버스를 타고 캄든으로 가는 중이었다. 워털루 다리를 건너 싸우샘프턴 거리를 올라가고 있는데 갑자기 엄청난 폭발음이 들려왔다.

...(중략)...

내가 쓰러질 듯 알리에게 기대며 얼굴을 돌리자 그는 나에게 팔을 돌려 감싸고는 그곳을 떠났다. 경찰차와 앰블런스의 경적소리가 온 거리를 가득 메우고 있었다.

아가야, 미안하다.

나는 부른 배를 잡고 혈떡이며 건다가 그렇게 중얼거렸다.

알리와 나는 길을 메운 채 움직이지 않고 서 있는 차들 사이를 이리저리 돌아서 길을 건너갔다. 내가 흐르는 눈물을 두 손으로 닦으면서 건다가 돌아보니 알리도 울고 있었다.(292쪽)

소설 『바리데기』의 마지막 장면이다. 바리는 아프가니스탄에 파병을 갔다가 무사히 돌아온 알리와 재회(再會)한다. 그리고 바리는 알리와 버스를 타고 캄든으로 가는 길에, 폭탄테러가 발생해 혼비백산한 현장에서 도망친다. 소설 『바리데기』의 마지막은, 폭탄테러를 당하고 현장으로부터 도망치는 바리와 알리가 걸으며 눈물을 흘리는 장면으로 끝이 난다.

옛이야기 <바리데기>에서 바리가 찾아다녔던 약수는 그가 수년 간 밥 짓고 빨래하던 물이었다. 서사무가 <바리데기>에서는 바리가 수년 간의 고생 끝에 동수자를 통하여 힘겹게 약수를 얻었다. 마찬가지로, 소설 『바리데기』에서 바리가 헤어진 부모를 찾기 위해 떠난 긴 타국 여행의 종착지에서, 바리는 배우자 알리와 함께 도망치며 걷다가 눈물을 흘린다. 고통과 문제의 연속인 삶의 한가운데에 있는 바리인 것이다. 그러나 그곳에서 바리는 눈물을 흘리며 저승과도 같은 세상을 자기 두 발로 오롯이 선 채 살아 가고 있다. 고통과 문제가 있는 삶은 끝나지 않았지만, 바리는 여전히 이러한 세상에 자기 몸을 던져 살아가며 힘들고 고통에 빠진 영혼들을 위로해주는 ‘상처 입은 치유자’로 지금까지도 상처 입은 영혼들을 도와주고 있다.

5. 나오는 말

지금까지 황석영 소설 『바리데기』 속 바리와 칠성이의 관계를 통하여, 치유자의 원형(原型)으로서의 서사무가 <바리데기>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서사무가 <바리데기>의 치유자로서의 원형을 잘 구현했다고도 볼 수 있는 황석영의 장편소설 『바리데기』에 주목하여, 소설 속 칠성이-바리의 관계를 집중해서 살펴보았다. ‘유기(遺棄)’라는 공통적인 상처가 있는 바리와 칠성이의 관계가 어떤 양상으로 변화해 가면서 궁극적으로는 바리가 ‘상처 입은 치유자’로 변화해 가는지 조명(照明)하였다.

칠성이를 바리의 ‘상처 입은 내면아이’로 보았다. 바리는 현실의 삶에 매몰되지 않고, 자기의 ‘상처 입은 내면아이’인 칠성이에 주목하고 돌보는 선택을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바리는 ‘상처 입은 내면아이’와 ‘경이로운 내면아이’의 통합을 경험하면서 점차 상처를 치유한 치유자로 변화해 간다. 처음에는 서로 완전히 분리된 존재였던 바리-칠성이는 내·외면에서 직접적으로 깊이 상호작용하면서 서로 같은 존재로 통합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서로 하나의 존재로 통합해 가는 과정 속에서, 바리는 칠성이와 하나가 되기도 하지만, 또 객관화된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울과 같은 역할로서 칠성이를 경험하기도 한다.

서로 통합에 이른 바리와 칠성이의 관계를 통하여, 바리는 궁극에는 할머니와 같은 진정한 치유자로 변화한다. 그런데 치유자로 변화한 바리의 모습은 할머니의 모습과는 조금은 다른 부분도 있었다. 할머니는 높은 신, 멀리 떨어진 신처럼 바리에게 갈 바와 깨달음을 직접 전해 주는 데 비해서, 칠성이는 할머니보다는 더 친밀하게 교류하면서 상대방이 직접 깨달음을 이룰 수 있도록 기다려 주고 정서적으로 지지해 주는 역할을 하는 진정한 ‘상처 입은 치유자’의 모습을 보였다. 바리는 칠성이를 통하여 친밀하면서 가까운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바리-칠성이의 상호작용 과정을 통하여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의 바리의 모습을 살펴본 것은, 치유자의 원형으로서의 소설 『바리데기』 속 바리는 어떤 모습인지를 살펴본 것과 같다. 오늘날 힐링, 치유의 키워드가 부각 되고 있는 때에, 진정한 치유자의 모습은 어떠한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진정한 치유자로 변화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서사무가 <바리데기>의 치유자의 원형(原型)을 잘 구현한 황석영의 장편소설 『바리데기』 속 바리-칠성이와의 관계를 분석한 것은 이러한 점에서 오늘날 치유자로의 변화를 갈망하고 꿈꾸는 모든 이들의 작은 지침(指針)이 될 수 있으리란 기대를 해 본다.

참고문헌

- 황석영, 『바리데기』, 창비, 2014, 1~302쪽.
- 강준수, 「〈바리데기〉에 나타난 서사 유형 고찰」, 『인문학연구』 103, 충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6, 1~26쪽.
- 김영희, 「내면아이(inner child) 개념을 활용한 자기 상실 애도의 글쓰기」, 『문학치료연구』 36, 한국문학치료학회, 2015, 197~251쪽.
- 김정은, 「동해안무가 〈바리데기〉의 화자별 변이 양상과 의미 : 구연자 성향에 따른 서사적 초점의 이동을 중심으로」, 『구비문학연구』 32, 한국구비문학회, 2011, 1~26쪽.
- 김효현, 「부모화된 청소년의 탈부모화를 위한 문학치료 프로그램 설계-〈바리데기〉설화를 바탕으로-」, 『문학교육학』 70, 한국문학교육학회, 2021. 1~339쪽.
- 박기량, 「황석영의 『바리데기』에 나타난 세계상과 낙화의 의미」, 『인문사회』 21, 12(2), 인문사회21, 2021, 1193~1206쪽.
- 박선양, 「디아스포라 서사의 ‘바리’ 변주-『바리데기』와 『종군위안부』를 중심으로」, 『국어문학』 81, 국어문학회, 2022, 435~459쪽.
- 박윤주, 「부녀관계에 기인한 남녀관계 갈등에 대한 문학치료 연구 :〈바리데기〉를 통한 자기서사 진단과 해결방향 탐색」,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1~177쪽.
- 송영림, 「바리데기 신화의 연극 공연으로의 변용과 그 의미-연극〈바리, 서천꽃그늘 아래〉를 중심으로-」, 『겨레어문학』 56, 겨레어문학회, 2016, 86쪽.
- 신동훈, 「창작 판소리의 길과 〈바리데기 바리공주〉」, 『판소리연구』 30, 판소리학회, 2010, 219~264쪽.
- _____, 「황석영 소설을 통해 본 이야기 전통의 현대적 재현 문제」, 『한국문학연구』 58,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18, 85~135쪽.
- _____, 「치유의 서사로서의 무속신화 -그 문학치료적 힘에 대한 단상-」, 『문학치료연구』 2, 한국문학치료학회, 2005, 21~42쪽.
- _____, 「21세기 사회문화적 상황과 고전문학 연구의 과제 -자본과 욕망의 시대, 존재와 가치의 근원으로-」, 『고전문학과 교육』 22,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11, 117~146쪽.

- 신동훈, 「서사무가 속의 울음에 깃든 공감과 치유의 미학 - 특히 <도량선비 청정각시>를 중심으로」, 『한국무속학』 32, 한국무속학회, 2016, 31~64쪽.
- _____ 지음, 박철민 그림, 『바리데기 야야 내 딸이야 내가 버린 내 딸이야』, 휴머니스트, 2013, 1~136쪽.
- 신연우, 「함흥본 <바리데기>의 죽음의 이해」, 『구비문학연구』 48, 한국구비문학학회, 2018, 149~184쪽.
- 양진오, 「세계문학으로서의 한국문학, 그 위상과 전망-황석영의 『바리데기』를 중심으로」, 『한민족어문학』 51, 한민족어문학회, 2007, 71~96쪽.
- 오창은, 「난민의 서사를 통한 유럽 보편주의의윤리적 재구성-황석영의 『바리데기』를 중심으로-」, 『국제어문』 83, 국제어문학회, 2019, 101~125쪽.
- 윤준섭, 「함흥본 <바리데기>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1~134쪽.
- _____, 「서사무가 안동본 <바리데기> 연구」, 『구비문학연구』 48, 한국구비문학학회, 2018, 185~213쪽.
- 이경화, 「<바리데기> 속 폭력의 양상과 그 현대적 의미」, 『우리어문연구』 74, 우리어문학회, 2022, 505~529쪽.
- 이성준, 「『바리데기』의 분석심리학적 접근」, 『배달말』 48, 배달말학회, 2011, 203~234쪽.
- 장한주, 「<바리데기>에 나타난 성장서사를 활용한 교수·학습 연구」, 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아주대학교, 2015, 1~69쪽.
- 정갑입, 「우리 안의 ‘아이’라는 자원 - ‘동심’과 ‘내면아이’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양명학』 57, 한국양명학회, 2020, 5~31쪽.
- 정운채, 「문학치료학의 서사이론」, 『문학치료연구』 9, 한국문학치료학회, 2008, 247~278쪽.
- 차민기, 「“바리서사”의 현대적 변용 양상 고찰- 『바리공주』와 소설 『바리데기』에 나타난 “여성성”과 “연대”의식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이론연구』 45, 현대문학이론학회, 2011, 345~371쪽.
- 최어진, 「아포칼립스(apocalypse) 콘텐츠로 읽는 <바리데기>-영화 <매드맥스 : 분노의 도로>(2015)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학논집』 84,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2021, 103~142쪽.
- 최윤정, 「우리 신화, 그 탈주-담론의 심층사회학-바리데기 신화 다시쓰기」, 『비교한국학』 20-2, 국제비교한국학회, 2012, 501~531쪽.
- 헨리 나우웬, 최원준 옮김, 『상처 입은 치유자』, 두란노, 2022, 1~156쪽.
- 호정화, 「탈북여성의 트라우마와 치유-황석영의 『바리데기』를 중심으로」, 『독

서치료연구』 14(1), 한국독서치료학회, 2022, 73~99쪽.

황윤정, 「상상적 이해의 문학교육 방법 연구 : 서사무가 <바리데기>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1~155쪽.

John Bradshaw, 오제은 옮김, 『상처받은 내면아이 치유』, 학지사, 2019, 1~416쪽.

ABSTRACT

As the archetype of the healer, the shamanic of <Baridegi>
 - “Chilsung” in the 『Baridegi』, Hwang Seok-young’s novel

Koo, Hyung-yeol

This paper analyzes the original form of a healer, focus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Bari and Chilsung in Hwang Seok-young’s novel 『Baridegi』, which modernly recreates Baridegi, and suggests what a meaningful wounded healer should be like even today, when healing and healing are becoming a hot topic. In the novel 『Baridegi』, a character named Chilsung appears, embodied in the form of a puppy, a human-friendly and cute animal. In this article, Chilsung sees the character as Bari’s wounded “inner child” and intensively analyzes how the wounded “inner child” in Bari is transforming into a phenomenal “inner child” through the process of internal maturity and integration.

The reason why we paid attention to the relationship between Bari and Chilsung in this paper is that the protagonist of Hwang Seok-young’s novel 『Baridegi』, including the shamanic of <Baridegi>, is a character with a wound called “abandoned”, and Bari, the protagonist in the story, is effectively healing these wounds and being reborn as a wounded healer. Abandoned right after birth can also be seen as a great “hurt” in which existence itself is denied, and Bari is not buried in these wounds from birth, but rather, heals himself through interaction with the existence of Chilsung and is showing great achievement in being reborn as a true healer expressed in the form of a grandmother.

In order to effectively analyze the process of changing the interaction between Bari and Chilsung to the appearance of a grandmother, who is a true healer, in this paper, Henri Nouwen used the concept of a “wounded healer” presented in his book 『The Wounded healer』. And the concept of “inner child” proposed by Karl Gustav Jung was substituted into the

Chilsung character and analyzed. Through the interaction with Chilsung, which can also be seen as Bari's "inner child," the process of Bari being reborn as a "wounded healer" by looking at his wounds objectively and healing them was analyzed using the above concepts.

In addition, the difference between the grandmother character and the Chilsung character, two important characters in the process of the wounded inner child being reborn as a wounded healer, was noted and analyzed. Chilsung is a dog raised by Bari and is a character with the same wounds as Bari's '遺棄'. Chilsung is depicted as a character who familiarly interacts with Bari with a cute, bright and cheerful image. On the other hand, although the grandmother takes care of Bari, she did not give Bari unconditional love from the beginning. The grandmother helps Bari through direct words, but this grandmother's appearance was seen as a somewhat distant and rigid relationship rather than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sung and Bari. In this paper, it was analyzed that the Chilsung character emphasized in Hwang Seok-young's novel 『Baridegi』 was the author's intention to unravel the heavy theme consciousness of pain and difficulties in life more friendly and brighter than the shamanic of 〈Baridegi〉.

These days, when healing and healing are emerging as keywords, shedding light on what a true healer's prototype is like in classical literature works allows us to look into what a meaningful healer should look like even today. Furthermore, just as no one in the world has been born and lived unscathed, the enlightenment of the process of transforming the wounded into the existence of healing the other injured can also be seen as meaningful to the injured and those who are contemplating what to do with the healer.

Key Words 『Baridegi』, Chilsung, Inner Child, Wounded Healer, Healer's prototype

논문투고일: 2025.01.03. 심사완료일: 2025.02.11. 게재확정일: 2025.02.11.
--